



■ 연구원 소식

○ 광주지부 변동강 회원 일행 연구원 방문 (9월 20일)

지난 9월 20일 우리 연구원 회원인 농협중앙회 변동강 이사와 장성 봉암서원 변온섭 이사장, 장성군민신문 변동빈 편집국장이 우리 연구원을 방문하셨습니다. 변주승 이사와 함께 연구원 사업 소개와 미래비전에 대한 좋은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멀리 전주까지 큰 걸음 나눠주신 변동강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연구원의 문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열려있으니 편히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네팔의 '은둔 왕국' 무스탕 기행, 세 번째 이야기

그림이면 그림, 글이면 글, 차고 넘치는 재주를 모두에게 나눠주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명봉 교수께서 보름간 네팔을 다녀오신 이야기를 격주로 연재합니다. “네팔의 '은둔 왕국' 무스탕 기행” 연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까그베니에서 사마르로



까그베니의 '레드 하우스'라는 롯지에서 단잠이 깼다. 하얀 눈을 뒤집어 쓴 날거리 봉우리가 맞은편에 우뚝하다. 레드 하우스는 300년의 전통을 지닌 롯지라고 한다. 나무와 흙으로 지었는데, 마치 중국의 객잔 같은 모습이다. 빼그덕 거리는 계단과 복도가 오히려 정답다.

7시 반쯤 길을 뚫다. 검은 지옥이란 뜻을 지닌 칼리-건더키를 거슬러 오른다. 시커먼 흙탕물이 질펀하게 흐르는데, 생명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가 보다. 검은 흙탕물에 수초마저 보이지 않는다. 강변을 맴도는 아녀자들이 암모나이트 화석을 줍는다. 인도 관광객들이 특히 좋아하기 때문이란단다. 주변의 경치가 기막히게 아름답다.

아주 오랜 옛날이다. 반도로 떨어져 나갔던 지금의 인도 땅이 네팔 쪽으로 다시 붙었다. 그 바람에 지각 판끼리 부딪히면서, 땅거죽에 주름이 크게 잡혔다. 히말라야 산맥이 높다랗게 솟구쳤다. 이때 바닷가의 빨과 모래, 자갈들이 뒤섞여 육지로 불쑥 올라왔다. 그리하여 지금의 낮설고도 독특한 풍광이 만들어졌다. 암염이 도처에서 생산된다. 게다가 바닷가에서나 볼 수 있는 통통마디, 바로 함초(鹹草)를 다른 곳도 아닌 이 험준한 고산지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도 하다.

이곳은 황량하고 척박하면서도 아름답다. 『마켄나의 황금』이나 『황야의 무법자』 등과 같은 서부영화의 무대로 딱 좋을 곳이다. 리반 클랴이나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되어 시가를 씹어보고, 뽀얀 먼지를 날리며 말 달리고 싶은 곳이다. 거니쉬 히말라야가 구름 사이로 언뜻언뜻 얼굴을 내미는 곳이기도 하다.

점심을 먹으러 추쌍 마을에 들었다. 이리저리 골목을 지나자니 대여섯 명의 아낙들이 모여 앉아 네 개의 솥에 무언가를 끓이고 있다. '창'이라고 불리는 전통술을 빚는 중이란단다. 보리가 주재료로, 우리나라의 막걸리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만든다고 한다.

롯지에서 살구와 복숭아를 몇 개씩 나누어주는데, 정말로 작다. 살구는 우리나라 매실만 하고, 복숭아는 더도 덜도 말고 살구만 하다. 딱 두 입씩이다. 그래도 맛은 괜찮다.

점심을 먹고 다시 길을 나섰다. 스쳐가는 경관이 외계의 풍광과 무척 닮았다. 고갯마루에 올라 어느 한 곳을 대면하는 순간, 화성인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가 여겨졌다. 지구인들 몰래 꾸며놓은 그들만의 비밀 기지나 요새 같았다. 안쪽에서 피오나 공주가 낯선 비행물체를 타고 우리들을 마중 나오는가 싶었다.

그렇지만 문제는 다음이었다. 하얀 흙으로만 이루어진 해발 3,522m의 고개는 아주 진을 뻘었다. 그렇지 않아도 이를 일정을 하루에 소화하는 27km가 아닌가? 걸어도 걸어도 오르막이니, 사마르는 존재하지 않는 마을 같았다. 숨이 턱턱 막히고, 모래와 먼지가 입 안에서 질금질금 씹혔다.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러나 정확하게 12시간 후인 7시 30분. 우리는 비로소 숙소에 들어가 편안하게 발을 뻗을 수 있었다. 27시간 15분 보다 긴 하루였다.

사마르에서 길링으로



해발 3,660m에 자리 잡은 사마르의 롯지 '히말리이의 아침'이다. 상쾌한 기분으로 롯지 앞의 개울로 나섰다. 어젯밤에 대충 몸을 씻었던 곳이다. 맑은 물살이 정다운 곳이다. 롯지의 안주인이 작은 양동이 두 개를 들고 나와 염소의 젖을 짠다.

이곳은 야크와 염소 그리고 소와 말이 많다. 그 바람에 곳곳마다 이들의 똥이 널려있다. 이 지역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는 카레가 아니라, 바로 이들의 똥냄새다. 물가에서는 박하와 리까우라는 풀이 자란다. 리까우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만 자라는데, 말려서 향초(香草)로 쓴단다.

7시 30분 출발이다. 먼저 계곡으로 내려간다. 널찍한 초지 위에 카르카가 나타난다. 우리네 염소막이다. 주인 내외는 컴컴한 움막 안에서 식사 중이다. 껍질이 벗겨진 염소 한 마리가 추녀 아래 매달렸다. 피가 뚝뚝 떨어진다.

다시 오르막이다. 주변에 버드나무가 줄을 잇는다. 이 지역에 제법 물기가 있다는 증거다. 눈향나무도 많은데, 땀감으로 소중하게 쓰이는 나무다. 능선 하나를 넘자니, 햇살이 따갑다. 경사도 만만치 않다. 굵은 땀방울이 흐른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니, 아래쪽이 까마득하다. 경치도 어제와는 달라졌다.

다시 계곡으로 구불구불 내려간다. 경사가 급한 만큼 길이 요동을 친다. 마른 바람이 분다. 입안이 버석 거린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 이런 모습일까? 미쳐 바위가 되지 못한, 그렇다고 흙이라고도 할 수 없는 어중간한 상태의 퇴적물들이 기기묘묘한 형상을 뽐낸다. 이곳의 지질은 연약하기 짝이 없으니, 끊임없이 부는 바람에 언제나 부슬부슬 부서져 내린다. 지금도 떨어지고 흘러내리는 중이다. 그래서 시나브로 길이 없어지고, 마을이 사라지기도 한다. 내구성 약한 이 지질은 아마도 네팔 정부의 가장 큰 고충이리라.

아무튼 우리는 바람의 걸작 속으로 스며들었다. 흙속에 숨어있던 부처들이 슬그머니 밖으로 나온다. 흙벽에 늘어선 마니차를 누가 돌리는가? 그침 없는 저 바람이 돌리는가? 일제히 펼쳐진 책갈피 속에는 부처님의 무슨 가르침이 담겼을까? 경이롭고도 오묘한 모습으로 도배를 한 이곳을 감히 화엄장엄이라고 부르면 아니 될까?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간 우리들은 드디어 맑은 물을 만났다. 모두들 와아! 하면서 지친 발을 식히기에 바쁘다. 아주 차가운 물이다. 피로가 싹 가신다.

다시 오르막이다. 햇볕까지 따갑다. 그래도 일부러 길을 바꿔 충시 동굴에 들른다. 천연적으로 조성된 사찰 랑츨 고평에 들르기 위해서다. 티벳에서 왔다는 스님 홀로 이곳을 지킨다. 스님은 우리에게 꿀차를 내주었다. 진짜 꿀맛이었으니. 모두들 한 잔씩 더 마신다.

얼마 후 제 길을 찾은 나그네들은 다시 힘든 오르막을 탄다. 두 시간 가량 고행의 구간이다. 험곡을 비집고, 황량한 풍광을 더듬으며 비탈길로 오른다. 1시 30분. 모두들 탈진 직전 상보체의 한 룯지에 겨우 들었다. 맥주 한 잔이 아주 달았다.

그리고 2시간 반으로 잡았던 오후 여정이 1시간 반으로 쏙 줄었다. 4시 무렵 아주 쉽게 끝났으니, 대부분 내리막길 아니었던가? 오전에 15km를, 오후에 10km를 소화한 하루였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새로 나는 속리산 상고암, 두 번째 이야기 - 개울 건너 비로산장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예로부터 법주사는 많은 암자를 거느렸다. 한창 때에는 무려 70개가 넘는 암자가 딸렸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여덟 암자만 남았다. 상고암은 물론이고, 복천암, 상환암, 중사자암, 여적암, 수정암, 탈골암, 동암이 여덟 암자에 해당한다.

상고암으로 가는 길은 먼저 법주사 앞에서 우측으로 뺀 포장도로를 택해 세심정洗心亭까지 올라가야 한다. 맑은 계곡수가 넉넉하게 흐르는 평탄한 길이다. 중간에 '목욕소沐浴沼'도 보인다. 목욕소는 세조가 법주사에서 대법회를 연 후, 목욕을 하고 피부병을 고쳤다는 계곡 안의 소 이름이다. 세조가 이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을 때, 약사여래불의 명을 받은 월광태자라는 미소년이 나타나 세조의 피부병이 나을 것이라 예언하였다고 한다.



목욕소 중생 하나를 제도했기에 이름을 얻은 신성한 물길이다

세조가 목욕을 마치자 몸에 났던 종기들이 깨끗이 사라졌으므로, 마침내 목욕소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 온다. 계곡에는 맑고 푸른 물이 지칠 줄 모르고 흐른다. 여기서 나뉘는 바위들이 속리산 계곡의 운치를 그려 낸다. 불현듯 가슴에 한줄기 전율이 짜르르 스쳐 간다. 눈부신 햇살이 나뭇잎 커튼을 뚫고, 맑은 바람은 청량하고 달콤하다. 속세의 먼지 한 점이 들지 않은 신선경이다.

어느덧 길이 두 갈래로 나뉜다. 왼쪽으로는 문장대로 올라가고, 오른쪽으로는 천왕봉으로 향하는 '세심정 삼거리'다. 세심정휴게소가 오가는 이를 맞는다. 여기에서 오른쪽 길을 택하면 바로 '세심정 절구'가 보인다. 이 절구는 12~13세기에 사용했던 것이다. 속리산의 영험한 기운을 받으며 공부하던 고승대덕이나 도인, 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쓰였는데, 이때 나락은 정부에서 제공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물의 낙차를 이용하던 물레방아가 사라지고, 돌로 만든 두 개의 절구통만 부질없이 물을 받아 흘리고 있다.

잠시 계곡 안의 바위 위에 올라가 땀을 씻자니, 주변에서 나무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다. 몸 안에 바람을 품었기에 절로 울려나는 노랫소리다. 더 높은 곳에서 울리는 바람의 소리를 듣고자, 담쟁이 넝쿨은 우듬지를 향해 감아 올랐다. 나무 그림자가 지면을 덮는다. 튀어나온 곳은 튀어나온 대로, 움푹 팬 곳은 패인 대로, 거울에비추는 양 차별 없는 자락을 고요히 덮는다. 소리 없는 파문이 골짜기에 퍼져 나간다. 소리 없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무와 오간다.

백두대간의 위용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 산길이 깊어질수록, 거대한 바위들이 숲 속에서 몸통을 드러낸다. 길가에 나앉은 바위들은 아예 거대한 석문이 되었다. 절대자의 침묵이 남긴 말없음표처럼 바위들이 띄엄띄엄 줄을 잇는다. 이따금 깨달음의 느낌표가 바위틈에 소나무로 박혔다. 나그네는 말문을 닫는다.

'세심정 삼거리'에서 200m가량 오르면 '비로산장'이 나타난다. 개울 건너 비로산장은 일견에도 고풍스럽다. 수줍은 듯 단아한 모습인데, 이마에는 서예 작품들이 죽 나붙었다. 비로산장은 모정茅亭김태환金泰煥노인이 꿈속 같은 일생을 보낸 장소다. 노인은 1965년에 지금의 자리로 들어와 산장을 일구면서 새로운 삶을 열었다고 한다.

지금은 90을 바라보는 나이에 노환으로 붓을 꺾었지만, 지난날에는 무릉도원이 부럽지 않은 이곳에서 필경筆耕을 베타 삼아 도인으로 살아왔다. 내건 작품들은 대부분 노인의 솜씨다. 철기鐵驥이범석李範奭장군과 초정艸丁권창륜權昌倫선생 등의 작품도 산장 안 곳곳에 숨어 있다.



비로산장 무릉도원은 진정 내 마음속에 있다고 들었는데...

비로산장은 개울가의 의자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기에 아주 좋은 곳이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무료하게 앉아 살갗에 꼬물거리는 햇살을 무한정 느끼며, 흐르는 물살을 태평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자리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거나 어떤 날씨라도 상관없이 제 자신부터 아름다운 산장이다. 언제나 하루쯤 유숙하고 싶게 만든다.

계곡의 물소리를 실컷 들어 보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눕고 싶은 곳이다. 그러나 아직 한 번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으니, 그 정취와 묘미는 자세히 알 길이 없다. 다만 정지용의 시 「인동차忍冬茶」를 읊으며 미루어 볼 뿐이다. 인동차는 인동초로 만든 차를 가리킨다.

노주인老主人의 장벽腸壁에
무시無時로 인동忍冬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 냄새 훈훈히 김도 사리다가
바깥 풍설風雪소리에 잠착하다

산중山中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얏다

다음 주는 새로 나는 <속리산 상고암> 세 번째 이야기 “원숭이 바위와 상고암”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

■ 후원사업 안내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제품”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 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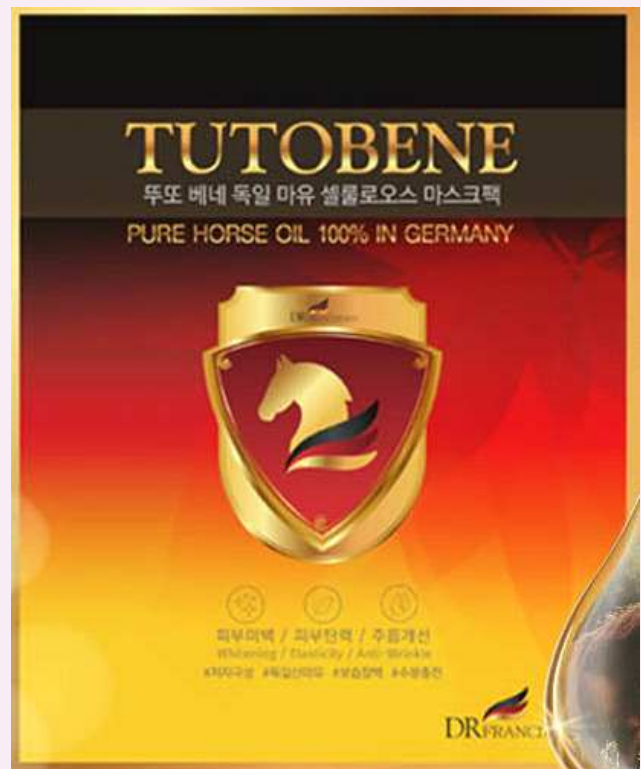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 마유 팩 효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마유팩 25g * 5매 >



< 마유팩 30g * 5매 >

◇ 시 중 가 : 1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 원

◇ 시 중 가 : 4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2만 원

◎ **마유 샴푸 및 바디워시 효능**

- 가려움 예방 및 피부 각질제거
- 두피관리 및 머릿결에 영양 공급
- 피부 활력 및 보습진정 효과

◎ **마유 세럼 효능**

- 피부 수분 및 영양 공급
- 고운 피부결과 화사한 피부톤 지원



< 마유샴푸 및 마유 바디 워시 >



< 마유 세럼 >

◇ 시 중 가 : 2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 원

◇ 시 중 가 : 6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3만 원

◎ 시중가는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연구원을 통해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